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만인이 알아야 할 지혜

(시편 49:1-2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인은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고 아침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곧 세속주의자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책이므로 종종 신약을 구약의 주석서로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일 때도 있어서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편 49편은 누가복음 12:13-21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만인이 알아야 할 지혜의 길

"뭇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1절).

1-4절은 시편이라기보다 잠언과 같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는 진리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 까닭은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문제이며, 또 사람이라면 이러한 교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철은 영어성경에서 'understand'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 2. 재물을 의지한 어리석은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6-7절).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이신론자며 무신론자인 볼테어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처하자 의사에게 고통과 절망에 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이미 의사의 손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볼테어의 재물도 그의 생명을 결코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돈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리라"(8절).

재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커녕 자신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재물은 그 어떤 구원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재물을 보유하는 기간도 한계가 있어서 죽은 후에는 누가 차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물이란 대단해 보이지만 이처럼 무력하고 또 무상한 것입니다. 부를 쌓아놓고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있다가 죽고 말 짐승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 3.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다"(10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한 것은 돈이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한 것이고, 죽음이 올 때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12절).

시인은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고 아침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곧 세속주의자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13절).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부는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다"(14절).

14절은 사망을 의인화하여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듯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의 목자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다"(15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접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누가 치부를 하고 명성을 떨친다고 해도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재물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복락을 자축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성공에 대해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18절).

그 날에 하나님은 의인을 영접하시어서 부활의 복을 주시므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재물을 찾고 재물을 절대시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인체하며, 재물이 없는 자는 실패자인양 비판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17절).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쌓기 위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19).

구속이라는 용어는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상업적 슬어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없어질 재물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 금요일(4월6일) 금식선포

내일부터 부활절(8일) 전까지 6일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2일(월)부터 7일(토)까지 새벽 기도회 시간(오전 5시30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을 묵상하는 메시지를 받으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6일)은 해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이날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모임은 교회에서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8시부터 한자리에 모여 이종윤 목사 인도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새벽예배(5시)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찬양예배 시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음악예배를 드린다.

## 2007년 봄시즌 - 제7회 화요정오음악회

4월3일(화) - 5월1일(화), 매주 화요일 정오

제7회 화요정오음악회가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준비된다. 2007년 봄 시즌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되는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는 4월3일(화) 정오 분당에서 박수원 오르간 독주회를 시작으로 5월1일(화)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정오에 저명한 오르가니스트들을 초청하여 열린다.

성도와 이웃이 함께 차원 높은 음악을 감상하며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꾸밀 수 있고 전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화요 정오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관람석은 3층에 준비된다.

화요정오음악회 자세한 일정은 주보에 간지로 넣은 팸플릿을 참조하기 바란다.

## 2007년 열린프로그램 - 4월 과정 개강

4월5일(목) 마리아 학교 시작으로

2007년 열린프로그램 4월과정이 금주부터 개강한다. 4월에 개강하는 첫 과정은 '마리아학교'로 4월 5일(목) 오전 10시 706호실에서 아래와 같이 열린다.

강료는 과목당 10,000원이다. 열린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열린프로그램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으며 수

과 목	일 자	시 간	담 당	강의실
마리아학교	4월 5일(목)	오전 10:00-12:30	박금실 전도사의외	706호
신명기반	4월 9일(월)	오전 10:00-11:00	이규정 목사	602호
소선지서Ⅱ반	4월10일(화)	오전 6:00- 7:00	이태훈 목사	602호
마태복음반	4월12일(목)	오후 7:30- 8:30	윤영국 목사	602호
디도서반	4월13일(금)	오전 6:00- 7:00	서명철 목사	602호
서울주부대학	4월10일(화)	오전 10:00-14:00	한상은 목사의외	602호
살렘경로대학	4월12일(목)	오전 10:00-14:00	서명철 목사의외	101호

## 교회당 내부 도장 작업

금주는 5층 복도 칠해

교회당 내부 도장 작업(페인트와 방염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5층 복도를 칠한다. 칠을 할 때 비닐로 완전히 막고 기계를 이용하여 뽀얗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5층을 사용하는 찬양대와 각종 모임은 부서끼리 협의하여 다른 층을 사용하도록 부탁드린다.

또한 칠을 하면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없애기 위

해 이동권 집사(주) 엔비오 대표가 기증한 '가시광 광촉매' 도료(태양광 및 실내조명에서 오염물질 분해력이 뛰어난)를 천정과 벽에 살포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신속한 완전분해를 촉진시켜 사용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정식, 오정수 장로의 총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다.

## 중등부 학부모 초청주일

오늘 오전 10시 10분 - 501호

중등부(부장:윤봉준 장로)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학부모를 초청 2007년 중등부 교육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도와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고3·수험생 기도결연회

오늘 오전 10시 - 601호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 결연회가 4월1일(주) 1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열린다. 고3·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단기전도학교 교회학교에서도 개강

-오늘부터 10주간-

단기전도학교가 오늘부터 10주간에 걸쳐 1부 예배 후 성경공부 시간에 2층분당에서 개강한다.

운동분부는 이 기간을 통해 미수료자들에게는 수료의 기회로, 기 수료자들에게는 반복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5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연장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 28기 단기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권장철 권장환 김경한 김규성 김시환 김영주 김영준 김지인 김지홍 김태영 김필임 김현영 김현숙 김현주 김형택 김형희 김 훈 문금희 박동희 박은정 박정순 박종숙 소만수 손태현 신성균 양정훈 우미란 원강희 유종숙 유태서 윤영남 윤혜련 이순례 이승문 이신애 이양숙 이영애 이영자 이영주 이준호 이태주 이현숙 이희숙 정은순 조미환 조민자 진교숙 천경숙 최세정 최승환 최정순 최종금 최향숙 한경섭 황노전 총 55 명

## 금주의 성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Galatians 6:14 [NIV])



주여!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게 하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같이 우시는 주님의 통곡소리를  
듣습니다.

력에 창자가 터지며, 형제의 피가 묻은 훈장을 달고  
도 애국했다고 자랑하는 이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내가 태양이라고 휘두르  
는 폭정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자들

한 톨의 주먹밥으로 목숨을 연명하다 배가 고파 나무  
껍질을 벗겨 삶고 또 삶아도 씹혀지지 않아 그 줄을  
붙잡고 울음을 터트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  
소서. 엄마가 독풀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 가는데  
어린 아들은 엄마 곁에서 물장난하며 놀고 있는 우리  
형제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옵소서. 수용소 간수의 폭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만행과 폭거에 시달리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두만강 물에 뛰어든 우리 형제들에게 “ 조금  
만 기다려라” “살아만  
있어다오” 애통하  
는 그들의 울음  
이 그칠 때 까  
지 우리도 같  
이 울게 하옵  
소서.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  
는 통곡의 밤은 내리는  
빛소리에 더 깊어만 갑니다.  
서울교회, 서울 금식통곡기도회 통곡의 불<sup>7</sup>뿔 대구  
서문교회로 이어져 온 민족의 가슴에 기도의 불길  
이 활활 타올라 하나 되는 기적의 <sup>7</sup>뿔 피게 하소서.  
<편집부>



#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김영현 집사(9교구)

주님! 길가에 하얀 목련이, 노란 개나리가 울해  
도 여전히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가짐  
으로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뛰어 들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이 분주함 속에 고난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도, 그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  
의 고난과 죽음도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고 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  
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축복만 - 축복만 부르짖고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고난을 피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주님의  
희생도 죽음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도 주님께 담당 시키신 하나님의 놀랍고  
도 크신 사랑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자비롭게 용서하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주님.

주님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무던  
우리 맘을 성령의 날선 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  
혜를 주시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주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자녀 삼아주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  
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 하시옵소서...

## 천국시민양성 - 고3 · 수험생 기도결연회

고등부는 4월 1일(주일) 1부 가족예배 후 601호실  
에서 고3수험생들을 위한 기  
도 결연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예민한 정서적 변화를  
겪는 시기의 청소년들은 미처  
그들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무  
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  
다. 또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  
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무거운 짐입니다.

더구나 고3수험생들은 입  
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칫  
왜곡된 정서를 가지기 쉬우므로 지금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  
다. 이를 위해 고등부에서는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될  
때 마다 고3수험생을 위  
한 기도 결연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맺어  
지는 기도 결연자들은 한  
해 동안 해당 학생의 기  
도카드를 가지고 책임 있  
게 기도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수험 기간을 통해 한결같은 주님의 사  
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들을  
위한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앞으로 교회와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다  
더 크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  
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  
게 됩니다.

서울교회의 온 성도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기도결연회가 행사  
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험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가 이들을 늘 곁에서 지  
켜주시고 이끌어 주시  
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  
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교사일동>

고난주간

#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박춘희 성도(디아스포라부)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자유의 땅, 신앙의 땅인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직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김정일을 위대한 평등자로 숭배하며 한 몸 바쳐 충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10년이라는 청춘을 오직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조선인민군대에서 바쳤던 제가 어느 한 순간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인생의 파멸과 좌절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옥과 같은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중국을 통해 이곳 자유의 땅으로 왔지만 오늘의 제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눈물로 기도하곤 합니다. 더욱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죄인 된 저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도 연약한 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새롭게 태어났지만 오늘의 나 자신은 또 다른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앞에 서있는 저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물밭**

올해는 \_\_\_\_\_

- 성경 - 1독 이상
- 전도 - 1인 이상

## 초등부 어린이들 성경통독의 은혜에 빠져들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606호에는 초등부(4-6학년) 어린이들이 앓된 목소리로 읽는 성경말씀이 낭랑하게 울려 퍼집니다.

겨울성경학교에서 '신나는 성경탐험'을 손 유희를 통해 성경의 맥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운 후,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어린이 성경통독학교'에 매주 삼십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바다에 빠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눈망울에서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사 : 김극영 정현실 성도 가정 개포동 대청@ 302-1005 T. 019-242-0227
- 특녀 : (10교구) 이상구, 이숙희 성도 가정
- 특남 : (5교구) 안인선, 강혜진 성도 가정
- 승진 : 옥종호 집사(12교구) 대한항공 화물영업본부 과장승진, 말레이시아 파견근무
- 주간식당 봉사 : 바울선교회(4.1) 엘리야선교회(4.8)
- 금주의 식사 : 양욱자 권사, 아들 하종욱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천국시민양성 - 마리아학교 초대이길

# 마리아 학교에 초대합니다

눈만 뜨면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사랑하 는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이 라고 말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근심하고 계시 지는 않으신가요?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고 근심 하여 찾던 마리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 을 마음에 둔 마리아처럼 마리아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려는 위임목사님의 기도로 개설되었습니다.

유아기는 가정에서 조금 더 넓은 사회기관으로 교

육의 환경을 넓혀야 할 시기이며,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첫발을 내딛는 아이에게 중요한 교사인 엄마들과 함께 10주간 '기본생활 습관'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예배, 인사 예절, 식습관, 순종, 자연보호, 질서 등으로 매주 주제를 다양하게 하여 활동과 놀이를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성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은 우리 아이들(24개월부터 36개월)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림!!

# 결혼예비학교 수료

지난 3월4일(주) 개강한 결혼예비학교가 5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결혼 예비학교는 5주 과정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 들, 신혼부부,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교회 에서 결혼예식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결혼

예비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창훈 이화용, 오유록 이주현, 정주형 박혜윤 김병선 손지은, 김세현 최지연, 김기영 전예주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림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들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